도용 종정예하가 부산 삼광사 청년회 대표에게 우승기를 전달하고 있다.

배구대회 우승팀인 대전 광수사 선수들(오른쪽)이 공격하고 있는 모습

# 배구공으로 하나된 천태종…"땀 흘리며 화합"

### 38회 상월대조사기 배구대회 부산 삼광사 종합우승
### 4년 만에 총 35개 말사 참가…단양군과 농산물 협약도

"강 스파이크" "와~" "우리 삼광사가 이겼다"

8월 30일 충북 단양 공설운동장. 4년 만에 천태종도가 한자리에 모여 구슬땀을 흘리며 저마다 자신의 소속 사찰을 목이 터져라 응원한다. 아직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짜증이 날법한 한여름인데도 표정들은 밝다. 자신의 소속 사찰 선수들이 잘할 때나 실수할 때나 한결같이 응원석에서 함성을 지르며 힘을 북돋운다.

광복 · 구인사 개산 70주년을 기념해 열린 천태종도의 화합을 다지는 축제의 장이 성대한 막을 내렸다. 이번 대회의 종합 우승은 부산 삼광사가 차지했다. 응원단 규모도 제일 컸다. 천태종은 8월 30일 충북 단양 공설운동장서 도용 종정예하를 비롯해 총무원장 춘광 스님, 종의회의장 문덕 스님, 감사원장 용암 스님, 류한우 단양군수, 전국 35개 사찰 종도 1만여 명이 운집한 가운데 '제38회 상월원각대조사기 전국청년회 배구 대회 및 천태화합한마당'을 열었다.

이번 대회는 교무부장 경혜 스님의 대회 선언과 시구에 이어 △배구 △족구 △승부차기 △피구 △단체줄넘기 △8인9각 △단체줄다리기 △응원 등 8개 종목 예 · 결선 등으로 펼쳐졌다. 1위는 부산 삼광사가 각종 종목서 거둔 우수한 성적에 화려한 응원전 점수까지 보태 종합우승을 차지했다. 2위는 분당 대광사, 3위는 대전 광수사가 영예를 얻었다. 하지만 이번 대회의 백미인 배구에서는 대전 광수사가 우승했다. 또한 이번 대회에서는 사찰 간 화합을 위해 충북 이남지역 사찰을 백팀으로, 이외의 사찰을 청팀으로 나눠 운영했다. 청백전에서는 100점의 근소한 차이로 청팀이 승리했다.

이외에도 △관음상=강룡사 · 삼룡사 · 명락사 · 천화사 · 삼개사 △문수상=보월사 · 장화사 · 삼태사 · 대안사 · 광법사 △보현상=대성사 · 황해사 · 원흥사 · 해장사 · 청안사 △금강상=봉등사 · 삼천사 · 동대사 등이 선정됐다.

총무원장 춘광 스님은 폐회식서 훈사를 통해 "청년회의 열정과 노력으로 전국서 모인 신도 및 불자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무량한 공덕을 쌓은 것 같다"면서 "오늘의 신명나는 에너지를 가슴에 품고 일상으로 돌아가 자랑스러운 천태불자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격려 했다.

이에 앞서 강동화 중앙청년회장은 폐회사서 "배구 대회와 천태화합한마당은 천태불자들의 화합을 다지는 자리다. 천태청년회의 가장 큰 불사"라고 말했다.

대회가 끝난 뒤 종합우승을 차지한 부산 삼광사 주지 무원 스님도 "우선 우리 삼광사가 종합우승해서 기쁘고, 화합의 한마당이 된 것 같다. 배구대회가 앞으로 세련되고 현대에 맞는 포교를 할 수 있는 밑거름으로 발전했다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소감을 피력했다. 또한 이날 천태종은 이날 개회식서 단양군과 지역 농산물 소비 활성화 장려를 위해 소비촉진 협약도 체결해 눈길을 끌었다.

한편 배구 대회는 1974년 5월 1회를 시작으로 2011년 37회에 이르기까지 해마다 개최했지만, 세월호 사고 등으로 연기했다가 이번에 4년 만에 개최했다. 취지는 "나라와 불교의 미래가 젊은 청년들의 손에 달려 있으며 청년들은 호연지기를 길러 건강하고 건전하게 자라야 한다"는 상월원각대조사의 가르침에서 비롯됐다. 이에 천태종은 대조사의 이 같은 유훈을 받들어 청년불교 활성화를 통해 신도포교의 기틀을 마련하고, 불법 홍포를 위해 종단 역량 결집 대회를 개최해 왔다. 경기 종목도 배구 외에 족구, 8인9각, 단체줄넘기, 승부차기, 피구, 명랑운동회 등으로 늘렸으며, 단양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점심 도시락을 지역 업체에 맡기는 등 지역과의 상생을 위해 힘쓰고 있다. 단양=김주일 기자

## 자유학기제 무료 템플스테이 열린다

### 문화사업단, 9~11월 13개 종립중 대상 시행

13개 종립중학교 학생 500명이 올해 시범 운영되는 자유학기제의 일환으로 템플스테이를 무료로 체험할 수 있게 됐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진화, 이하 사업단)은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 간 동대부여자중학교, 청담중학교, 능인중학교 등 종립중학교 13곳의 재학생 500명을 대상으로 템플스테이 체험을 무료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템플스테이는 동화사, 부석사(서산), 봉선사 등 5곳 사찰에서 올해 시범 운영된다. 내년 본격 시행되는 자유학기제의 일환으로 진행되며, 소요 비용은 사업단이 지원한다. 자유학기제 템플스테이 체험 지원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업단은 2일 브리핑을 통해 "정부의 자유학기제 정책에 동참하는 한편, 미래 세대의 주역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국 전통문화체험을 통한 자기 성찰의 기회를 제공해, 교육체험활동의 한 형태로 템플스테이의 저변을 넓히고자 한다"고 밝혔다.

사업단은 이번 자유학기제 템플스테이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청과 협의를 거쳐 내년 전국의 학교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사업단은 이달부터 내년 8월까지 진에어 국내 · 국제선의 탑승권을 소지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서울 조계사와 봉은사의 당일 코스 템플스테이를 각각 20%와 10% 할인하는 이벤트를 시행한다. 동반 1명도 동시에 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할인 희망자는 전화 예약 후 현장에서 탑승권을 제시하면 된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 봉은사, 불교영어능력 인재 양성 나서

### 10월 7일부터 매주 수 총 12강 진행… 9월 30일 접수 마감

봉은사가 불교의 세계화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불교영어능력을 갖춘 인재 양성에 나섰다.

서울 봉은사(주지 원학)는 10월 7일~12월 23일 진행되는 '제9기 불교영어강좌' 수강생을 모집한다.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2시간 진행되는 이번 교육 프로그램은 △불교기초교리 △사찰의 이해 △여성 불자로서의 역할 △불자와 수행 등을 주제로 영어 강좌가 진행된다.

기본적인 영어 독해가 가능한 사람은 누구나 신청가능하며 9월 30일까지 선착순 50명 마감이다. 문의 (02)3218-4825~6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대학생불자 '청년스트레스' 불심으로 극복!**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회장 이채은, 이하 KBUF)는 8월 13~16일 경남 하동 쌍계사 및 보리암 일대서 '제6회 KBUF Young Buddhist Camp'(이하 영캠프)를 실시했다.

'언제 어디서나 주인 되는 무한능력발전소'란 주제로 진행된 이번 캠프에서는 청춘들 잔치답게 이색 프로그램이 마련돼 눈길을 끌었다. 성인이 된 대학생들만의 고민을 털어놓고 공감하는 시간으로 기획된 '19금 붓다II', 어려운 불교 용어를 넌센스 퀴즈로 재밌게 풀어낸 '도전 붓다킹', 몸으로 자신을 표현하며 역동적으로 수행하는 '몸짓명상' 등이다. 특히 '도전 붓다킹' 프로그램서는 물총놀이도 함께해 학생들의 즐거움을 더했다.

이채은 회장은 "이번 캠프는 어느 때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법우들의 모습을 보기 돼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며 "부처님 가르침을 마음에 새겨 앞으로 '책임이 따르는 자유'를 누리는 주체적인 삶을 살 수 있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박아름 기자

## 공불련 '15주년' 합동법회

### 10월 3~4일 순천 송광사서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회장 김상인, 이하 공불련)는 10월 3일~4일 순천 송광사서 '창립15주년기념 합동수계법회 및 대의원총회'를 개최한다.

송광사 율주 지현 스님이 계사로 나서는 합동수계법회는 이튿날인 4일 창립 15주년 기념법회와 함께 진행된다. 당초 합동수계법회는 지난 6월 예정돼 있었으나 메르스 사태로 연기된 바 있다. 이밖에도 철야정진, 금강경 독송 및 108배, 암자순례 등도 실시된다. 박아름 기자

## 질풍노도 청소년들에 '명상힐링을…'

### 파라미타, 청소년명상힐링지도사 육성 과정 마련

질풍노도시기를 겪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정서적 안정과 여유를 되찾아주기 위한 명상힐링 전문지도자가 양성된다.

사단법인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회장 정여, 이하 파라미타)는 청소년명상힐링지도사 육성에 나선다. 청소년명상힐링지도사는 청소년들이 내적 성찰 및 자아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명상활동지도 역할을 수행하는 자들이다.

파라미타는 청소년명상지도 유경험자 혹은 파라미타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자격연수와 필 · 실기 시험 등 실시한다. 자격연수는 1차 8월 29~30일 통합템플스테이센터, 2차 10월 24~25일 제주 관음사서 진행되며, 교재는 정여 스님의 〈나를 찾아가는 명상여행〉과 〈명상 선기공〉이 선정됐다.

한편 이번 양성 프로그램은 한국직업능력대발원으로부터 '청소년명상힐링지도사' 민간자격증을 승인 받아 마련됐다. 파라미타는 "향후 1기 청소년명상힐링지도사가 배출되면 정여 스님과 함께 현장지도 경험을 바탕으로 지도자 지침서를 개발할 예정"을 밝혔다. 박아름 기자


# 불교의식 수강생 모집

## 단기속성 3개월과정(48기)

본 대학에서는 일상적으로 상용화되고 있는 불교의식에 대한 교육을
실기와 병행하여 실시하며 다음과 같이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1. 교육안내
- 개강일시 : **2015년 10월 7일 (수요일) 오후 3시** (목탁 지참)
- 교육시간 : 매주 수요일, 목요일 오후 3시~5시
- 교육장소 : 서울 본 대학 (위치 : 서울 조계사 근처)
- 통신교육 : 지방 거주자 (교재, 교육자료, 녹음CD 우송)

2. 교육내용

① 송 주 편 (도량석, 조석종성 등)
② 예 경 편 (상단예불, 조석예불, 각단예불, 향수해례, 사성례, 신중단 등)
③ 헌 공 편 (삼보통청, 중단퇴공, 관음, 지장, 신중청, 각종 불공의식 등)
④ 재의식편 (천도재, 49재, 시다림, 기제사, 명절제사 등)
⑤ 시 식 편 (관음시식, 화엄시식, 상용영반, 구병시식, 방생의식 등)

3. **신청방법** : 전화 또는 방문 접수 (우편, 팩스 접수 가능)
- 사찰 및 포교원에서 실제로 상용화되고 있는 의식방법을 집중 지도함
- 필요에 따라 일부 범음범패를 병용해서 의식 집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함

☎ 02)733-1959
720-1836

*깨달음의 법(法) · 전법하는 사(師)*
한국불교법사대학.대학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45-3 (견지동, 한선빌딩 3층)
http://pubsa.buddhism.org FAX : 02)737-5305



# 지리산 다슬기 진골드

지리산과 덕유산일대의 자연산다슬기와
국내산 약재로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선조들의 지혜가 듬뿍 담겨 있는 지리산 다슬기 진 골드로
생활의 활력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신장과 시력보호에 탁월한 효과를 지닌 다슬기를 주 재료로 하여
맑은 지리산 계곡물과 함께 각종 약재를 함께 넣어서 정성껏 달였습니다.
장시간 책을 많이 보시는 분들과 수행에 지친 분들께 원기를 복돋아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선물 입니다.

**제품문의 : (02)879 - 2007**
**입금안내 : 농협 1282-17-003433 (주)한메소프트**
**입금금액 : 125,000원(무료배송)**